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모유수유교육경험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 및 통제신념에 관한 연구

이조윤 · 이강욱[†] · 현화진

중부대학교 관광보건대학

A Study on Knowledge and Control Beliefs Regarding Breastfeeding of University Students by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d Education in Breastfeeding

Jo Yoon Lee, Kang Wook Lee[†], Wha Jin Hyun

College of Tourism & Health, Joongbu University, Chungnam,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breastfeeding education experience on knowledge, control beliefs, and future intention toward breastfeeding to consider the needs of breastfeeding education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The breastfeeding knowledge, control beliefs and related habits of 445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evaluated between September 1, 2011 to April 30, 2012. Data were collected from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SPSS for Window V.17.0. χ^2 -test, t-test and ANOVA were used for the calculation of differences between groups. The percentage of students who intended to breastfeed their baby was 80.7% (male: 73.6%, female: 84.2%). Only 21.6% of students experienced breastfeeding education. Students planned to get information related to breastfeeding from their mothers (32.4%), breastfeeding experts (23.8%) and Medical doctors & nurses (10.6%). breastfeeding education group showed higher knowledge level (14.46 vs 10.56) and control beliefs (3.48 vs 3.16) to breastfeeding than non-education group ($p < 0.001$). General attitude toward breastfeeding was similar between groups; the specific intention to breastfeed for 6 months was higher in the education group (83.3% vs 58.2%) ($p < 0.01$). Percentage of students who gave correct answers to knowledge questions related to breastfeeding was also higher in the breastfeeding education group than non-education group (72.3% vs 52.8%). Among 20 questions, only 2 question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breastfeeding education was effective in encouraging or improving breastfeeding practices. (*Korean J Community Nutr* 18(5) : 457-466, 2013)

KEY WORDS : breastfeeding · breastfeeding education · university students · future intention toward breastfeeding

서론

우리나라 완전 모유수유율은 2006년 14.1%, 2009년 13.6%, 2012년 11.4%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이와 같은 결과는 미국 2009년 16.3%(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 또는 OECD의 평균 모유수유율 23.4%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논문을 통해 알려진 모유수유의 장점(Cernadas 등 2003; Callen & Pinelli 2004; Forster 등 2006)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모유수유율이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 특히 생후 3개월까지 완전 모유수유율이

접수일: 2013년 7월 13일 접수
수정일: 2013년 8월 26일 수정
채택일: 2013년 9월 26일 채택

[†]Corresponding author: Kang Wook Lee, College of Tourism & Health, Joongbu University, 201 Daehakro, Chubu-myon, Geumsan-gun, Chungnam-do 312-940, Korea
Tel: (041) 750-6761, Fax: (041) 750-6060
E-mail: kwlee@joongbu.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09년 57.0%, 2012년 50.0%로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완전모유수유의 기간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여성이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는, 모유부족, 모유수유 중에 겪는 유두손상에 따른 통증, 젖몸살 등으로 나타났으며(Yoo 등 2002; Yun & Lee 2012), 이와 같은 모유수유 중단 요인들은 수유자세 및 방법을 개선하게 되면 수일 내에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정보 부재에 따라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Chin & Amir 2008; Lee 등 2012).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유수유에 대한 여성의 의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모유영양 및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전달이 중요하며, 또한 모유수유를 시작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있어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보조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바(Manoj & Rick 1997; Sarah 2000; Nigel 등 2013), 이를 위해 여성은 물론 남성을 위한 모유수유증진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최근 모유수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Song 등(2008)은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관련지식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모유수유 지식수준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Lee 등(2008)은 여대생의 모유수유 지식 및 태도 조사 연구에서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대학교육에서 여대생을 위한 모유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실습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Choi & Lee(2006)는 고교생의 모유영양 지식과 태도 및 모유수유 영양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고교생들은 모유영양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유영양 실천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모유영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Song 등(2007)은 한국청소년의 모유수유 관련 건강교육을 위한 e-정보전략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서 모유수유 빈도가 낮은 현상과 관련하여 모자보건의 차원에서 정부의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과 교육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2002)은 모유수유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여성들의 수유양상 기초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모유수유율이 낮은 특성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관련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Seo 등(2000)은 산후 초산모에게 제공한 산전 교육 및 산욕기 동안의 반복적인 강화 교육이 우리나라 산모의 모유수유율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Joan &

Marie(2007)은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한 모유영양 교육의 결과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전문적 수준의 교육과정 개설이 요구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Yardaena 등(2011)은 미국 소아과 의사들에게 제공된 모유수유 교육과 지원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미국의 소아과 의사는 모유수유와 관련하여 교육과 지원에서 부족하며 모유수유의 증진을 위해 소아과 의사들은 모유영양 지식과 기술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연구결과에서 보고되었듯이 우리나라 모유수유율의 증진을 위해서는 모유수유 및 모유영양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많은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기혼여성의 산전, 산후뿐만 아니라 미혼여성에 대한 모유수유 관련 조기교육과 모유수유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재학 중인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유영양 및 모유수유와 관련된 교육 경험 여부와 함께 현재 모유수유에 대해 갖고있는 인식 등을 파악하고, 특히 대학생의 모유수유 교육경험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정도 및 모유수유 실천에 따른 통제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미래 모유수유에 미치는 영향과 완전모유수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모유수유증진 교육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1년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남녀 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조사 연구대상은 전국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울에 위치한 S대학교, M대학교, 부산에 위치한 Y대학교, 경기도에 위치한 H대학교, 충남에 위치한 J대학교, 전남에 위치한 M대학교, 경북에 위치한 K대학교, A대학교를 선정하였으며, 보건계열 학과를 포함한 다양한 학문 전공자를 대상으로 자가 기록식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전공과 학년의 편중을 막고 설문작성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대학의 교양수업시간 중에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 및 연구조사자가 직접 대학에 방문하여 설문지에 기록되어있는 설문지의 목적, 연구내용 등을 설명하였다. 설문작성 시간은 모든 설문 항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보통 설문 작성은 20

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는 총 455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일반적 특성 외에 설문을 작성하지 않은 응답자 10(2.22%)명을 제외하고 자료 분석을 수행한 대상자는 남학생 125명, 여학생 320명으로 총 445(97.80%)명이었으며 연구기간은 2011년 11월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 수행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1) 일반적 특성 및 조사변수

조사내용은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전공, 학년, 종교, 가족형태 등의 일반특성과 자신의 유아기 때 수유형태, 미래 자신의 아기에 대한 수유형태 및 기간, 모유수유 교육경험 여부 및 교육장소,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획득방법 등의 모유수유관련 변수 등을 조사변수로 활용하였다.

2) 모유수유관련 지식정도 및 통제신념

대학생의 모유수유 지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IIFAS (Iowa Infant Feeding Attitude Scale) 측정도구 문항 (Claibourne 등 2007) 및 다수의 연구문헌 (Kim 등 2002; Choi 2003; Marie & Joan 2007)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설문은 아기에게 주는 이점 4문항, 엄마에게 주는 이점 4문항, 아기의 생리 관련 4문항, 아기의 영양 관련 3문항, 수유방법 관련 5문항 등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한 정답은 1점, “모르겠다”와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784$ 로 나타났다. Rotter (1966)는 행위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상황에 대한 행동잠재성의 일반화된 기대치를 나타내는 개념을 “통제신념”이라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 모유수유행위에 대한 통제신념은 Moon 등(1998)과 Oh 등(1994)의 문헌을 통해 모유수유 행위에서 주된 장애요인으로 파악된 행위를 표집하고 각각의 저해요인에 대하여 “~할 경우에도 모유를 먹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서술문항을 개발하여 설문에 사용하였으며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751$ 로 나타났다. 서술문항은 산모의 비유 관련 저해요인 4문항, 산모의 생리 관련 저해요인 4문항 및 산모의 실천 관련 저해요인 4문항으로 총 12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모르겠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모유수유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모유수유 지식정도 및 통

제신념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을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교육경험 정도의 차이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정도 및 통제신념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 및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경험에 따라 모유 수유의지 및 수유기간에 차이가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SPSS 17.0이 이용되었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여학생은 320명(71.9%), 남학생은 125명(28.1%)으로 총 445명이었으며, 연령은 21~23세가 55.3%로 가장 높았으며 18~20세 25.2%, 24~26세 15.7%, 27세 이상 3.8%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로 구분하였을 때 31.9%와 68.1%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89.4%가 두세대 이하의 핵가족이었으며 10.6%가 세세대 이상의 대가족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종교를 갖지 않은 대상자가 50.8%로 가장 높았고 가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Variable	Participants	
	n	%
Gender (n = 445)	Male	125 28.1
	Female	320 71.9
Age	18~20	112 25.2
	21~23	246 55.3
	24~26	70 15.7
	Over 27	17 3.8
Major	The humanities	13 2.9
	Social science	63 14.2
	Natural science	136 30.6
	Education	35 7.9
	Arts & physical	56 12.6
	Medicine	142 31.9
Grade	Freshman	139 31.2
	Sophomore	113 25.4
	Junior	116 26.1
	Senior	77 17.3
Religion	Protestant	55 12.4
	Catholic	117 26.3
	Buddhist	45 10.1
	Other	2 0.4
	Unaffiliated	226 50.8
Family type	Nuclear family	398 89.4
	Extended family	47 10.6

톨릭 26.3%, 기독교 12.4%, 불교 10.1%, 기타 0.4% 순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모유수유관련 특성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모유수유관련 특성 및 교육 경험여부와 미래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취득방법에 관한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모유수유관련 변수 중에 자신의 영유아기 때 수유형태에 대한 질문은 자신의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전해들은 정보에 근거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보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모르겠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95명(43.8%)이 모유수유를 했다고 답했으며 혼합수유 27.6%, 조제분유수유 14.4%, 모르겠다 13.5%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 자신의 아기에게 모유수유 의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359명(80.7%)이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답했으며 모유수유를 하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는 19.3%였다. 또한 전체 여학생 317명 중에 267명(84.2%)이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답했으며, 전체 남학생 125명 중에 92명(73.6%)이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모유수유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영양 또는 모유수유와 관련된 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349명(78.4%)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96명(21.6%)은 교

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을 받은 시기와 장소는 교육을 받은 96명 중 79명이 대학수업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그 밖에 고등학교수업, 특강, 보건소 및 의료기관, 인터넷 순으로 답했다.

미래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얻겠냐는 질문에 전체응답자 중 32.4%가 자신의 엄마로부터 얻겠다고 답하였고 23.8%가 수유전문가, 10.6%가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얻겠다고 답한 반면에 TV, 신문, 책에서 정보를 찾겠다는 응답자는 7.0%, 스마트폰을 포함한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겠다는 응답자는 4.9%로, 각종 미디어 정보매체를 통해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응답은 11.9%에 머물렀다. 특히 남편으로부터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얻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한명도 없었다. 한편 연령, 종교, 가족형태에 따른 차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특성상 연령층이 한정되어 있고 좁은 연령대에서 통계적인 유의성 차이의 비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배제하였다.

3. 일반적 특성 및 교육경험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정도 및 통제신념의 차이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교육경험의 차이에 따라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통제신념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2. Breastfeeding factors of the subjects

Variable	Participants		
	n	%	
Breastfeeding history	Breastfed an infant	195	43.8
	Formulafed an infant	64	14.4
	Breast/formulafed an infant	123	27.6
	Unsure	63	13.5
Breastfeeding behavior intention in the future	Yes	359	80.7
	Male	92	73.6
	Female	267	84.2
	No or Unsure	86	19.3
Experience in breastfeeding education	Yes	96	21.6
	No	349	78.4
Breast-feeding information acquisition in the future	Mother-in-law	10	2.2
	Mother	144	32.4
	Friends & relatives	12	2.7
	Breastfeeding professionals	106	23.8
	Breastfeeding courses	41	9.2
	Medical doctors & nurses	47	10.6
	Postpartum Care Centers	32	7.2
	TV, Newspapers, Books	31	7.0
	Internet (smart phone)	22	4.9
	Husband	0	0.0

Table 3. Differences in breast-feeding knowledge, attitude, and control belief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reast-feeding intention and experience in breastfeeding education

		Knowledge	Control beliefs
Gender	Male	9.60 ± 4.46 ¹⁾	3.15 ± 0.50
	Female	12.10 ± 3.76	3.26 ± 0.48
	t-value	-5.975	-2.076
	p	0.000***	0.038*
Major	Non-Medi.	10.72 ± 4.17	3.17 ± 0.50
	Medicine	12.85 ± 3.62	3.35 ± 0.43
	t-value	-5.222	-3.802
	p	0.000***	0.000***
Grade	Freshman	10.01 ^a ± 4.00	3.12 ^a ± 0.44
	Sophomore	10.91 ^a ± 3.92	3.2 ^{ab} ± 0.47
	Junior	13.07 ^b ± 3.87	3.31 ^{bc} ± 0.53
	Senior	12.09 ^b ± 4.01	3.34 ^c ± 0.50
	F-value	13.969	5.108
	p	0.000***	0.002**
Breastfeeding intention	Yes	11.92 ± 3.89	3.26 ± 0.48
	No/Unsure	9.22 ± 4.34	3.07 ± 0.51
	t-value	5.643	3.197
	p	0.000***	0.001**
Experience in breastfeeding education	Yes	14.46 ± 3.02	3.48 ± 0.46
	No	10.56 ± 3.98	3.16 ± 0.47
	t-value	8.919	6.081
	p	0.000***	0.000***

1) Mean ± SD
 a,b,c: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 < 0.05, **: p < 0.01, ***: p < 0.001

1) 모유수유지식 정도의 차이

모유수유 지식정도의 차이는 성별, 전공계열, 학년, 모유수유의지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총점 20점 만점에 전체 조사자의 지식점수는 평균 11.40점 (± 4.11)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대학생 (9.60) 보다 여자 대학생 (12.10)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보건계열의 학생 (12.85)들이 비보건계열의 학생 (10.72)들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한편 학년별 지식정도 차이는 고학년 (3학년 13.07, 4학년 12.09)이 저학년 (1학년 10.01, 2학년 10.91)에 비해 높았으며 모유수유의지가 있는 학생 (11.92)들에게서 모유수유 의지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들 (9.22)에 비해 모유수유지식에 대한 정도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경험 여부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의 정도에서도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총점 20점 만점에 14.46점을 획득하였으며 교육경험이 없는 학생의 총점 10.56점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대학생들의 모유수유와 관련된 교육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

는 집단 간의 문항별 지식정도 차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표에 제시된 값은 응답자들의 정답평균값과 표준편차로서 여기에서 평균값은 곧 정답율을 의미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전체적인 정답율은 교육경험 집단에서 72.3%, 교육경험이 없었던 집단에서 52.8%로 나타났다. 또한 20개 문항 중에서 18개 문항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총 20문항의 모유수유 및 모유영양 지식에 대하여 교육경험이 있었던 집단에서 정답율이 높았던 문항은 “모유에는 면역성분이 있어 아기의 장내세균 감염을 예방해준다”(96.9%), “모유를 먹이면 아기의 알레르기성 질환을 감소시켜준다.”(94.8%), “모유는 조제분유보다 소화가 잘 된다”(94%), “모유는 냉장 또는 냉동 보관 후에 먹어도 된다.”(85.4%), “모유수유는 엄마의 산후회복을 촉진시킨다.(85.4%)” 등의 순이었으며, 오답율이 높았던 문항은 “모유 량이 부족할 때, 조제분유를 먹으면 문제가 해결된다.”(24.0%), “조제분유를 먹으면 모유를 먹이는 것보다 산모의 체중조절에 도움이 된다.”(36.5%), “모유수유를 할 때 유방에 멍울이 생겨 아파도 수유를 계속하는 것이 좋다”

Table 4. Responses to knowledge questions related to breastfeeding and lactation

Topics	Statements	Experience in breastfeeding education		p
		Yes	No	
Ingredient of breast milk	Breast milk is easier to digest than artificial milk	0.94 ± 0.243 ¹⁾	0.75 ± 0.435	0.000***
	Artificial milk food is richer in nutritional needs than breast milk	0.79 ± 0.408	0.61 ± 0.489	0.001**
	The absorption of iron is more efficient in breast milk compared to artificial milk	0.52 ± 0.502	0.36 ± 0.480	0.004**
Physiology	Breast milk has immune substances for prevention of intestinal harmful bacteria	0.97 ± 0.175	0.80 ± 0.399	0.000***
	Breastfeeding reduces the risk of allergic diseases in babies	0.95 ± 0.223	0.74 ± 0.436	0.000***
	Small-breasted mothers produce less milk	0.72 ± 0.452	0.42 ± 0.494	0.000***
	Smoking is transmitted to the baby through breast milk	0.80 ± 0.401	0.68 ± 0.467	0.019*
Benefits for the baby	Artificial milk food promotes the intelligence quotient than breast milk	0.73 ± 0.447	0.55 ± 0.498	0.002**
	Breastfeeding strengthens growing teeth and chin	0.75 ± 0.435	0.63 ± 0.483	0.033*
	Breast-feeding helps to prevent baby's obesity	0.73 ± 0.447	0.55 ± 0.498	0.002**
	Breastfeeding is more effective for babies emotional development	0.79 ± 0.408	0.57 ± 0.495	0.000***
Benefits for mother	Breastfeeding prevents a mother from getting pregnant again	0.61 ± 0.489	0.25 ± 0.435	0.000***
	Breastfeeding is more effective for postpartum recovery	0.85 ± 0.355	0.59 ± 0.492	0.000***
	Breastfeeding reduces the risk of breast cancer in the mother	0.84 ± 0.365	0.63 ± 0.484	0.000***
	Formula feeding is more effective for mother's weight control	0.36 ± 0.484	0.33 ± 0.470	0.487
Practice of breastfeeding	After the cooling and freezing storage, its ready to feed the baby	0.85 ± 0.355	0.57 ± 0.496	0.000***
	The first milk that comes out after the birth shouldn't be offered to the baby for mother's lactation	0.77 ± 0.423	0.54 ± 0.499	0.000***
	Allowing the baby to suckle more frequently can increase the amount of breast milk	0.71 ± 0.457	0.41 ± 0.492	0.000***
	If not enough breast milk, one method that can be used is to give artificial milk	0.24 ± 0.429	0.11 ± 0.308	0.001**
	When a duct is plugged, mother may need to breastfeed more often	0.52 ± 0.502	0.47 ± 0.500	0.378

1) Mean ± SD

*: p < 0.05, **: p < 0.01, ***: p < 0.001

(52.1%), “모유가 조제분유보다 철분 흡수가 잘 된다” (52.1%)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교육경험이 없었던 집단에서 정답율이 높았던 문항은 “모유에는 면역성분이 있어 아기의 장내세균 감염을 예방해준다”(80.2%), “모유는 조제분유보다 소화가 잘 된다”(74.8%), “모유를 먹이면 아기의 알레르기성 질환을 감소시켜준다.”(74.5%), “산모가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모유로 전달된다.”(67.9%) 등의 순이었으며, 오답율이 높았던 문항은 “모유량이 부족할 때, 조제분유를 먹이면 문제가 해결된다.”(10.6%), “모유수유는 산모에게 자연피임 효과가 있다”(25.2%), “조제분유를 먹이면 모유를 먹이는 것보다 산모의 체중조절에 도움이 된다.”(32.7%), “모유가 조제분유보다 철분 흡수가 잘 된다”(35.8%)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인공수유가 산모의 체중 조절에 더 효과적이다”는 문항과 “모유수유 중에 젖몸살이 생기더라도 모유수유를 계속해야 한다.”는 문항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모유수유통제신념 정도의 차이

전체 조사자의 통제신념 평균점수는 3.23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교육경험의 차이에 따른 모유수유 통제신념은 학년과 모유수유지식(p < 0.01), 전공계열과 교육경험(p < 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대학생(3.15)보다 여자 대학생(3.26)이 약간 높은 정도 차이를 나타냈으며(p < 0.05),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보건계열의 학생(3.35)들이 비보건계열의 학생(3.17)들에 비해 더 높은 통제신념 평균점수를 보여주었다. 한편 학년별로는 고학년(3학년 3.31, 4학년 3.34)이 저학년(1학년 3.12, 2학년 3.20)에 비해 높았으며 모유수유의지가 있는 학생(3.26)들에게서 모유수유 의지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들(3.07)에 비해 모유수유통제신념에 대한 정도 차이가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경험에 따른 차이 또한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3.48)들이 없는 학생(3.16)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모유수유와 관

련된 교육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의 문항별 통제신념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총 12문항의 모유수유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하여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유의성 차이는 “아파서 약을 먹을지라도 나는 모유수유를 계속할 것이다”와 “젓이 부족하여 다른 산모의 젓을 수유할 수 있다면 모유수유를 계속 할 것이다.”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의 문항에서 유의성이 인정 되었다.

4. 교육경험여부와 모유수유의지의 관계

교육경험여부에 따라 모유수유의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모유수유의지에 대하여 모유수유 교육경험이 있는 대학생과 없는 대학생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교육경험여부와 완전모유수유기간의 관계

모유수유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경험여부에 따라 장래 계획하고 있는 모유수유기간에 대하여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모유수유기간에 대하여 모유수유 교육경험이 있는 대학생과 없는 대학생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특히 세계보건기구와 전문가들로부터 모유수유는 최초 6개월 동안은 완전모유수유를 수행하고 그 이후로 보충식과 함께 모유수유를 지속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바, 교육경험이 있는 대학생들 중에서 6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하겠다는 응답자가 83.3%로 교육경험이 없는 응답자 58.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Table 5. Responses to control beliefs questions related to breastfeeding and lactation

Topics	Statements	Experience in breastfeeding education		p
		Yes	No	
Lactation	I will continue to breastfeed, even if the baby refuses to nurse	3.49 ± 0.929 ¹⁾	3.25 ± 0.924	0.023*
	I will continue to breastfeed, even if the baby bite the nipple too hard	3.29 ± 0.882	3.09 ± 0.838	0.038*
	I will continue to breastfeed, even if I must do breast care such as breast massage	3.75 ± 0.984	3.40 ± 0.883	0.001**
	I will continue to breastfeed, even if I suffer from breast engorgement	3.32 ± 0.968	2.95 ± 0.902	0.001**
Physiology	I will continue to breastfeed, even if I gave birth to a premature baby	4.09 ± 0.872	3.61 ± 0.882	0.000***
	I will continue to breastfeed, even if I take some medicine because of sickness	2.21 ± 0.972	2.32 ± 0.965	0.313
	I will continue to breastfeed, even if I had to have a Caesarean	3.70 ± 0.896	3.07 ± 0.840	0.000***
	I will continue to breastfeed, even if my baby is provided by a donor milk because I did not have enough breast milk	3.13 ± 1.018	2.93 ± 0.986	0.091
Practice	I will continue to breastfeed, if I must do exclusive breastfeeding for more than six months	4.09 ± 0.796	3.52 ± 0.921	0.000***
	I will continue to breastfeed, if I must refrain from smoking, caffeine and excessive drinking	3.80 ± 1.270	3.47 ± 1.123	0.012*
	I will continue to breastfeed, even if I need to breastfeed in public	3.31 ± 0.977	3.02 ± 0.913	0.007**
	I will continue to breastfeed, even if I return to work within the breastfeeding period	3.59 ± 0.802	3.21 ± 0.866	0.000***

1) Mean ± SD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6. Differences in breast feeding intention according to experience in breastfeeding education and non-experience in breastfeeding education

		Breast-feeding intention		Total	χ ² (p-value)
		Yes	No/Unsure		
Experience in breastfeeding education	Yes	84 (87.5) ¹⁾	12 (12.5)	96 (100.0)	3.658 (0.059)
	No	275 (78.8)	74 (21.2)	349 (100.0)	
Total		359 (80.7)	86 (19.3)	445 (100.0)	

1) N (%)

Table 7. Plan for exclusive breastfeeding period

		Exclusive breastfeeding period			Total	χ^2 (p-value)
		< 6 month	6 month	> 6 month		
Experience in breastfeeding education	Yes	14 (16.7) ¹⁾	42 (50.0)	28 (33.3)	84 (100.0)	17.833 (0.000***)
	No	115 (41.8)	100 (36.4)	60 (21.8)	275 (100.0)	
Total		129 (35.9)	142 (39.6)	88 (24.5)	359 (100.0)	

1) N (%)

***: p < 0.001

고 찰

완전모유수유는 여성과 그 2세의 영양적 유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교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알려져 왔다. 그러나 여성이 아기를 분만하였을 때, 완전모유수유를 실천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전국의 남녀 대학생を対象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모유수유 관련 특성, 조사대상자의 교육경험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 정도 및 통제신념의 차이, 모유수유의지 및 수유기간의 관계 그리고 교육경험여부 집단 간 문항별 지식정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조사 당시 재학 중인 학부학생으로 여학생 320명 (71.9%), 남학생 125명 (28.1%) 총 445명이었다. 모유수유 관련 변수 중에 조사대상자 자신의 영유아기 때 수유형태는 전체 응답자 중 43.8%가 모유수유를 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Choi & Lee (2006)가 고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53.3%가 모유수유를 했다고 하였으며 Song 등 (2008)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 모유수유 52.7%, 혼합수유 25.8%, 인공수유 11.0%, ‘모르겠다’ 10.5%로 보고하여 본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가 모유수유를 했다고 응답한 경우, 전적으로 부모 또는 가족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에 근거하였고 모유수유기간 또한 명확하지 않아 그것이 완전모유수유를 했다고 볼 수 없었다.

미래 자신의 아기에게 모유수유 의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 여학생 중에 84.2%가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답했으며, 전체 남학생 중에 73.6%가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모유수유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미래 모유수유 의지를 조사한 Song 등 (2008)의 연구 결과에서 95%가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답한 결과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모유수유와 관련된 교육경험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78.4%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고 답했으며 21.6%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Choi &

Lee (2006)가 고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7.3%에 불과했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ong 등 (2008)의 연구 결과에서는 21.9%가 교육경험이 있다고 조사한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교육경험 대상자 중에 82.3%가 대학 수업 중에 이루어져 임신부 또는 예비부부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얻었냐는 질문에서 32.4%가 자신의 엄마로부터 얻었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수유전문가와 의료전문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은 미래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있어 수유형태와 상관없이 자기 엄마의 육아 경험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것으로 보여 지며 또한 수유전문가 및 의료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는 응답 또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우리나라 대학생의 모유수유 정보취득에 대하여 비교적 전문적 지식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교육경험의 차이에 따라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 및 통제신념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지식정도의 차이는 성별, 전공계열, 학년, 모유수유의지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특히 교육경험 여부에 따른 지식 정도에서도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총점 20점 만점에 14.46점을 획득하였으며 교육경험이 없는 학생의 총점 10.56점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Choi (2003)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정도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에서 모유수유의지가 있는 학생 (0.51)과 모유수유의지가 없는 학생 (0.43) 간에 유의한 차이 (p < 0.01)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교육경험여부에 따라 문항별 지식정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개 문항 중에서 18개 문항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인공수유가 산모의 체중조절에 보다 더 효과적이다.”는 문항과 “모유수유 중에 젖몸살이 생기더라도 모유수유를 계속해야 한다.”는 문항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Song 등

(2008)이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모유수유 교육을 받은 학생이 영양, 생리, 시도, 관리지식 영역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식정도 차이가 있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모유수유 지식정도의 차이는 성별, 전공, 학년, 모유수유의지 등과 같은 요인들과 함께 모유수유와 관련된 교육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모유수유 통제신념에 대한 차이는 비보건계열 학생보다는 보건계열 학생이,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모유수유의지가 없는 학생(3.07)보다는 있는 학생(3.26)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수유의지가 없는 학생의 경우, 가장 낮은 통제신념평균점수(3.07)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모유수유를 실천하는데 있어 모유수유의지가 모유수유 장애요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3.48)의 경우, 가장 높은 통제신념평균점수를 보였으며 교육경험이 없는 학생(3.16)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001$) 교육경험여부에 따라 문항별 통제신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12개 문항 중에서 10개 문항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파서 약을 먹을지라도 나는 모유수유를 계속할 것이다”는 문항과 “젖이 부족하여 다른 산모의 젖을 수유할 수 있다면 모유수유를 계속할 것이다.”는 문항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모유수유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있어 모유수유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여겨진다. 또한 우리나라 산모에게 모유수유를 중단하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유방 및 유두의 통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추후 모유수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통제신념 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모유수유의지와 교육경험여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경험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수유의지가 높은 원인으로 해석된다. 한편 교육경험여부에 따라 얼마동안 완전모유수유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모유수유가 아기나 산모 또는 여성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동안의 완전모유수유가 필요하다는 교육경험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올바른 모유수유를 위해서는 대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가임여성들을 위한 모유영양이나 모유수유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모든 결과를 종합할 때 우리나라 대학생의 모유수유 교육경험여부에 따라 대부분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모유수유관련 교육이 모유수유 증진과 함께 올라

른 모유수유 방법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일 거라 여겨지며 이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우리나라 모유수유교육이 거의 대학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한계 속에서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연구가 구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요약 및 결론

미래 자신의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359명(80.7%)이었으며 모유수유를 하지 않겠다고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86명(19.3%)이었다. 또한 전체 여학생 중에 84.2%가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답했으며, 전체 남학생 중에 73.6%가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모유수유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와 관련된 교육경험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21.6%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78.4%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고 답했다.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얻었냐는 질문에서 32.4%가 자신의 엄마로부터, 23.8%가 모유수유관련 전문가로부터, 10.6%가 의료전문가로부터 얻었다고 답했다.

모유수유 지식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성별, 전공계열, 학년, 모유수유의지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01$), 특히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총점 20점 만점에 14.46점을 획득하였으며 교육경험이 없는 학생의 총점 10.56점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모유수유 통제신념에 대한 정도 차이는 비보건계열 학생보다는 보건계열 학생이,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모유수유의지가 없는 학생(3.07)보다는 있는 학생(3.26)에게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수유의지가 없는 학생의 경우, 가장 낮은 통제신념평균점수(3.07)를 보여주었으며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3.48)의 경우, 가장 높은 통제신념평균점수를 보였으며 교육경험이 없는 학생(3.16)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01$).

교육경험여부에 따라 모유수유의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모유수유의지와 교육경험 여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얼마동안 완전모유수유 기간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는 교육경험 집단 중에서 최소 6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하겠다는 응답자가 83.3%로 교육경험이 없는 응답자 58.2%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또한 문항별 지식정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 대상자의 모유수유 지식정도는 20점 만점에 평균 11.40점(± 4.11)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정답율은 교육경험 집단에서 72.3%, 교육

경험이 없었던 집단에서 52.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장래 우리나라 영유아를 위한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유수유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며, 추후 교육에 따른 모유수유지, 지식정도 및 통제신념 간에 상관성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 직장여성, 임산부, 산모를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모유수유프로그램 개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Callen J, Pinelli J (2004): Incidence and duration of breastfeeding for term infants in Canada, United States, Europe, and Australia: a literature review. *Birth* 31(4): 285-292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 Breastfeeding among U.S. children born 2000-2009, CDC national immunization survey. Available from http://www.cdc.gov/breastfeeding/data/NIS_data/index.htm [cited 2013 June 24]
- Cernadas JM, Noceda G, Barrera L, Martinez AM, Garsd A (2003): Maternal and perinatal factors influencing the duration of exclusive breastfeeding during the first 6months of life. *Human Lactation* 19(2): 136-144
- Chin LY, Amir LH (2008): Survey of patient satisfaction with the breast feeding education and support services of the royal women's hospital, Melbourne.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14(8): 1-11
- Choi KS (2003): A study on the future plans for infant feeding practice and its associated fact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Community Nutr* 8(2): 240-249
- Choi KS, Lee HJ (2006): A study on knowledges and attitudes about breast milk feeding and needs for breast milk feeding educ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 Community Nutr* 11(2): 191-204
- Claibourne ID, Rhona JM, David MT, Anne BW, Florin O (2007): Infant feeding attitudes and knowledge among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women in Glasgow. *Matern Child Health J* 12: 313-322
- Forster D, H. McLachlan, J. Lumley (2006): Factors associated with breast feeding at sixmonths postpartum in a group of Australian women. *Int breastfeeding* 1(18): 1-18
- Joan ED, Marie T (2007): Outcomes of a breast-feeding educational intervention for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27: 856-867
- Kim JE, Park DY (2008):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and needs of breast feeding education for pregnant women in health centers. *Korean J Community Nutr* 13(6): 818-828
- Kim JK, Choi HM, Ryu EJ (2011): Postnatal breast feeding knowledge, techniques and rates of first-time mothers depending on a prenatal breast-feeding education method. *J Korean Acad Soc Nurs Edu* 17(1): 90-99
- Kim KN, Hyun TS, Kang NM (2002): A survey on the feeding practices of women for the development of a breast-feeding education program. *Korean J Community Nutr* 7(3): 345-353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The 2012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family health and welfare in Korea. KIHASA, Seoul
- Lee HK, Song Y, Kang NM (2008): A survey of female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breastfeeding. *Korean J Community Nutr* 13(3): 367-373
- Lee SO, Na SS, Park KY (2012): Exclusive breast-feeding rates of breast feeding-willing mothers and its influencing factors by the 1st, 3rd, and 6th month of postpartum.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16(1): 44-55
- Manoj S, Rick P (1997): Impact of expectant fathers in breast-feeding decisions. *J Am Dietetic Assoc* 97(11): 1311-1313
- Marie T, Joan ED (2007): Knowledge, attitudes, exposure and future intentions of Hong Kong university students toward infant feeding. *J Obstet Gynecol Neonatal Nurs* 36(3): 243-254
- Maryann B, Tricia P (2013): Increasing student nurses' knowledge of breastfeeding in baccalaureate education. *Nurse Educ in Practice* 13(3): 228-233
- Moon GN, Jung JH, Kim YJ, Lee SO, Choi GS, Chung ES, Bai JY (1998): Breast feeding practice according to the breast-feeding problem during the first week of postpartum. *Korean J Women Health Nurs* 4(3): 416-428
- Nigel S, Valerie H, Christina P (2013): Engaging and supporting fathers to promote breast feeding: A concept analysis. Available from [http://www.midwiferyjournal.com/article/S0266-6138\(13\)00219-2/abstract](http://www.midwiferyjournal.com/article/S0266-6138(13)00219-2/abstract) [cited 2013 August 22]
- Oh HE, Park NJ, Im ES (1994): An analitic study measuring factors interrupting in breast-feeding. *Korean Maternal Child Health Nurs* 4(1): 68-79
- Rotter J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609: 1-28
- Sarah E (2000): Why some women do not breast feed: bottle feeding and fathers' role. *Midwifery* 16(4): 323-330
- Seo IS, Jung MS, Suh YS (2000): Effect of education for encouraging breastfeeding on practice of breastfeeding. *Korean J Women Health Nurs* 6(4): 632-642
- Song BC, Cho JH, Lee IY, Kim MK (2008): A study on knowledge on breast feeding of college students by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Korean J Food Cult* 23(2): 268-272
- Song Y, Kim AJ, Lee YS, Yoo TW, Kang NM (2007): Evaluation the breast feeding information websites for Korean adolescents. *Korean J Food Nutr* 20(4): 487-493
- Yardaena BO, Robin LA, Patricia AP, Karen SE (2011): Breast feeding education and support services offered to pediatric residents in the US. *Acad Pediatr* 11(1): 75-79
- Yoo EK, Kim MH, Seo WS (2002): A study on the rate of breastfeeding practice by education and continuous telephone follow up. *Korean J Women Health Nurs* 8(3): 424-434
- Yun SE, Lee HK (2012): Effects of breast-feeding adaptation, attitude and practice of primipara depending on method of postpartum breast-feeding education. *Korean J Women Health Nurs* 18(2): 75-84